



연세대학교내로 이전하고 산학협동체제 구축

제품의 질·판매·마케팅과 병행 포장에 적극 투자할 터



▲ 지난 12월 연세대학교 내로 이전한 풀무원 연구소 전경

88년 과기처에 정식 등록

지난 91년 창사 10주년을 맞아 풀무원식품이 제정한 새로운 얼굴에는 '자연건강 생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며, 'PULMUONE'의 'ONE'은 풀무원사람들은 하나이자 최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녹색곡선은 환경보존은 물론 자연그대로의 신선함과 건강, 그리고 삶의 방법까지 담아내는 자연을 담은 큰 그릇을 의미한다.

무공해 농산물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주)풀무원(대표 남승우)은 유기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 효소식품 등 건강식품류의 제조·판매, 생수사업 및 전통식품을

과학화·고급화하여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학·약학·식품공학·영양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위원회와 기술연구소, 식생활연구소, 조리연구실 등을 설치하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현재 생산품목으로는 유기농산물과 생지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지향·전통식품, 광천음료수, 화장품, 생활용품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처음 생산을 시작한 유기농산물은 공인연구기관과 풀무원기술연구소에서 유기함량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풀무원유기농 인증마크를



▲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풀무원연구소는 석사31명, 학사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착하여 시판하고 있다.

88년 과학기술처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식으로 등록된 풀무원은 89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풀무원식품의 제품 연구를 시행해 오다 93년 산학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4년 제4대 여익현 연구소장이 취임한 이래 사업부제 실시로 연구인력을 분화시켰으며 연구개발 전략세미나를 신설하여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나해로 2회째를 맞은 연구개발 전략세미나는 지난해 연구개발실적을 정리하고 96년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로 연구소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포장전담연구원 1명이 명맥 유지

375.91평에 석사 31명, 학사 5명을 비롯하여 총 4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연구소는 연구지원, 건강식품연구, 기초식품연구 세파트로 나누어 연구기획팀, 분석관능팀, 건강연구팀, 기초연구팀, 면류연구팀, 장류연구팀, 두류연구팀 8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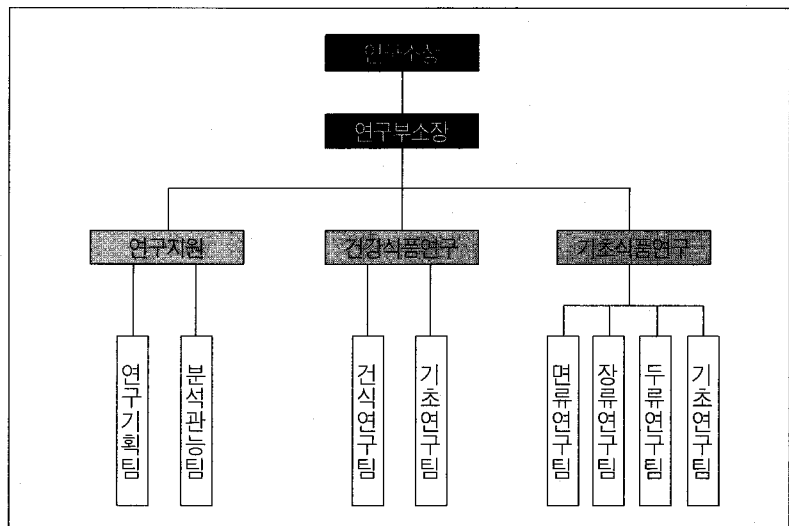
풀무원식품기술연구소는 '자연과 조화된 건강한 생활문화 창조 추구'라는 기업이념을 살려 유기농산물의 재배 및 잔류농약에 대한 기초연구와 규격관리의 수행을 시작으로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및 2차가공식품, 전통식품의 과학화 및 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며 천연원료에서의 칼슘제재 개발과 미량 영양소 및 식이섬유를 충분히 함

유한 곡류를 이용한 각종 효소식품을 비롯하여 야채발효식품, EPA, DHA 등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임상실험을 해왔다.

한편 국내 최초로 초고압기기를 이용한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장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응용식품소재 개발, 미려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포장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포장디자인 연구, 공정 및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연구, 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미래 산업기반기술을 위한 연구도 한창 진행중이다.

또한 풀무원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세대학교에서 추진한 연세공학센터(YERC)의 건립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연구센터의 건립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해왔다. 앞으로 산학연구 활동보다 한 차원 높은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연구소 전체를 지난 12월 15일 연세대학교내로 이전하여 연대식품생물공학과를 비롯한 관련학과 등과 실험기자재 및 연구인력의 공

[표 1] 연구소 조직도



유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계획 중이다. 또한 연세대학내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약 1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실험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포장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현재는 정규재연구원 1명만이 포장을 전담으로 연구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 여름쯤 인원을 보강하여 이제 풀무원이 제품에서의 신뢰성 뿐만 아닌 포장에서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처음 포장을 맡게 되었을 때 백지상태에서 자료도 불충분하고 업체간의 정보교환도 활발하지 않아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그 자료를 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풀무원은 성장에 주력한 기업이라 제품의 질과 판매, 마케팅에 치중하여 포장에 많은 비중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포장가공업체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



▲ 최신의 실험설비를 자랑하는 풀무원 (100점이상의 시험기를 보유하고 있다).

렴하다보니 저희 제품의 특성상 적합한 포장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신 포장재, 환경적응형 포장재 적용에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도 식품회사라는 특성상 물류부문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고 각 부문에 낭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의 초점을 소비자들의 편리와 기업의 코스트다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밝히는 정 연구원은 고려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그간 장류, 소스류, 농수축산물 연구를 해오다 포장연구를 집중적으로 맡게 된 것은 여익현 연구소장이 취임하고 부터라고 한다.

풀무원이 연세대학교에 40억원을 기증하고 산학협동연구단지 공학연구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산학협동차원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학은

기업의 우수한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 활용, 산학공동연구 진행, 연구원들 재교육 실시, 첨단학문을 쉽게 접하여 국제연구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이윤을 교육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추구’를 기업이념으로 하고 있는 풀무원은 그 느낌마저도 신선하게 느껴진다.

‘자연은 우리삶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지난해에는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와 공동으로 환경포장재 개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판매액의 0.1%를 환경보존기금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가 1.7%인 풀무원은 건강생활기업으로의 위상에 맞는 제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

[표 2] 연구소 주요 실험설비

주요 설비	제조국명	도입연도
Spray Dryer	일 본	1988
적외선 수분계	일 본	1990
동결건조기	대한민국	1992
초저온냉장고	덴 마 크	1994
GC	미 국	1990-1993
GC-mad	미 국	1993
HPLC	미 국	1990-1993
광학현미경	독 일	1993
미생물여과농축기	미 국	1994
가압멸균기	대한민국	1991
배양기	대한민국	1988-1993
초고압살균기	일 본	1994
ICP	프 랑 스	1994
초대형 발효기	대한민국	1995

①주요시설 소개: Spray Dryer, Gc-Mass, 초고압가공기기 외

②전체보유량: 100점 이상(주로 대형기기를 중심으로)

③제조국명: 대한민국의

④도입년도:

강력한 리더십과 결집력으로 독특한 운영미 발휘 포장에 대한 관심 남달라 포장개선 연구 적극 추진

무공해 식품회사의 대명사인 (주)풀무원식품의 제품개발 원동력은 기술연구소의 땀방울이 일구어낸 결실이다. 초창기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서슴치 않고 밤을 지새우며 새벽 2,3시까지 업무를 진행하였고 결혼을 앞둔 직원과 같이 합숙을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직원이 결혼식만 참석하고 신혼여행을 반납케 했던 여익현 소장은 프로의식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그가 약 40여명에 가까운 연구원 및 각 사업본부 연구원들을 강하게 리드하는 힘은 바로 풀무원내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한 흡인력과 추진력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연구소직원의 87%가 석사이상인 연구소의 특성상 강력한 리더십과 결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연구력을 집중하기 어렵고 이는 곧 회사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는 그의 눈빛에서 그만큼 가진 독특한 경영의 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93년 풀무원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그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후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당시 그의 취임후 연구소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침체기에 있던 건강보조 식품영업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제품 개발을 적시에 진행, 정체된 영업의 활로를 모색케하여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일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술의 풀무원’ 구축을 위해 회사의 핵심 기반기술과 미래지향 사업군의 필요기술을 구분하고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벤치마킹해 연구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력 집중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젊은 기업으로 널리 인식된 기업답게 다양한 산학연구를 통한 생산현장에서의 적용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구체적



▲ 여익현 소장

인 산학협동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연구소 전체를 연세대학교 안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학문동향, 우수한 연구인력 활용, 연구원 재교육 등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여 소장의 포장연구에 대한 관심은 마케팅 실장으로 재직시절부터 남달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컨설팅계약을 맺고 산업화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후 곧바로 포장담당 연구원을 배치하여 풀무원내 포장연구를 최초로 진행하게 하는 등 포장부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한달동안 포장관련세미나를 2차례나 개최하였고 전략세미나를 통해 96년 포장연구 계획을 발표, 진행케 하고 있다. 경영방침중 하나인 환경경영에 포장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제품만이 아닌 포장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게 될 풀무원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풀무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적 욕구였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사회적 요인이 풀무원이 만들어내는 식품을 필요로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는 초창기의 그런 요인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성장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원들에게는 재교육기회와 전문화를 계속해서 부여하며 회사 기반기술의 구축과 생물공학, 정밀화학 등 첨단기술력을 갖는 연구소로의 성장비전이 조화를 이루는데 역할을 해야하는 연구소장으로서 비장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이선하 기자